

특별기획 시리즈
제 164 회

금성치과의원 원장
-김 규 문-



페스트

중세기 십자군에 의해서 유럽에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수입 품은 곧 병이었다. 십자군이 대량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나병환자의 수가 무서운 세력으로 늘어 났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.

그외에도 전염성의 병들이 즉 티브스, 두창 그외에도 유럽을 황폐화 시켰던 악명높은 전염병이 흑사병 즉 선 페스트였다.

현대에도 AIDS와 중세의 페스트를 곧잘 비교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웠던 기억이었으리라.

이 기묘한 분장을 한 의사를 그린 채색판화는(1725년) 그 당시의 위생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부리 부분에 악취를 중화하는 방향성 물질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.

이와 같은 복장은 중세에 페스트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

독일 국립박물관 소장(뉴른 베르크)